

안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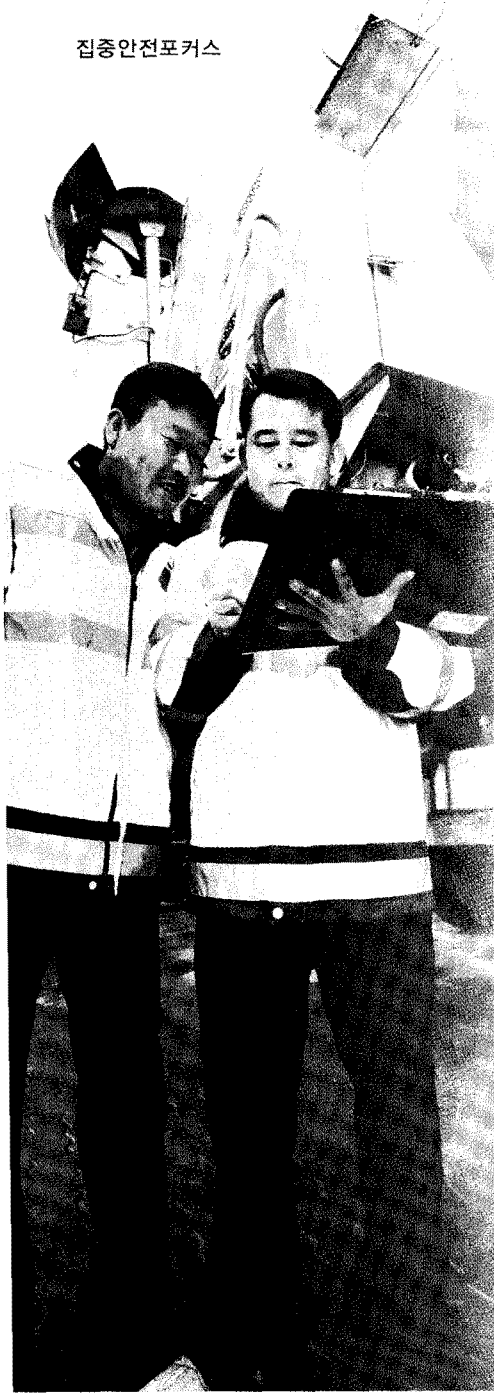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가다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1969년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과 확장,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총 29개 고속도로 3,426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취재 | 임재근 기자





무재해 5배 달성, 그 시작은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국도인 경부고속도의 중추적인 구간인 안성부터 청주 나들목까지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는 지난 해 4월 무재해 5배수를 달성하며 우리나라 고속도로 안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관리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안성부터 청주 나들목은 평균 6~8차로의 넓은 도로에 평일 약 58,000대, 주말 약 69,000여대의 교통량으로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기간고속도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노선 중 하나다. 산업물동량,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특히 이곳의 유지관리를 위해 순찰이나 청소, 보수공사, 사고처리 등을 위해 고속도로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천안지사는 철저한 안전관리활동으로 무재해를 일궈나가고 있으며, 70여 명의 근로자들은 밤낮없이 폭설과 폭우 등 악천후에서도 국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을 생활화, 안전을 습관화

이곳 천안지사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이 생활화,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체조를 실시하고 그 날 작업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구호 외치기 등을 통하여 하루의 시작을 안전과 함께 한다. 또한 매일 아침 현장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작업에 있어 위해요인 발굴, 아이디어 수집, 의견수렴 등 상호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을 실천하고 있다. 매월 1회 진행되는 특별안전교육의 날에는 24개의 교통상황 TV에 녹화된 각종 교통사고발생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전 직원이 교통사고의 원인, 예방대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다시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작업 중 교통사고의 위험 높아..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로 작게는 노면잡물(도로이용 차량에서 떨어지는 각종 물건) 수거부터, 크게는 교통사고 처리까지, 도로노면포장이나 구조물과 안전시설 보수, 갓길 청소, 세설작업, 수해 복구공사, 범법 식초작업, 염화물 상차, 유지보수 자재 출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은 고속주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근로자는 작업 중 자칫하면 교통사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평일 기준 58,000여 대의 교통량을 고려해 본다면 고속도로에서의 작업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작업이다. 특히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 시 교통사고 발생이 잦는데, 이의 처리를 위해 중장비와 인원이 동원될 때 위험은 극도로 높아진다. 특히 장비와 자재 그리고 이를 운전, 활용하는 직원들과 고객차량이 안전의 연결고리에 걸려 있어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추진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전 덕수 지사장

즐·소·위, 근간이며 핵심은 바로 안전

직장이란 작게 보면 개인과 가정, 넓게 보면 인류의 소중한 꿈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터입니다. 즉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통하여 기업과 자신이 더불어 성장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천안지사의 운영방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즐?소?위" 입니다. 즐거운 직장, 원활한 소통으로, 위기관리를 잘 하는 지사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이 운영방침의 근간이며 핵심은 바로 안전 안전입니다.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이 즐거운 직장의 필수조건이고 근로자와 근로자, 근로자와 고객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안전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관리란 빈틈없는 안전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단기간의 성과는 그야말로 모래위의 성과 같습니다. 매사에 안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성과만이 폭설이나 폭우 등의 악천후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여 고객과 우리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천안지사는 근로자들의 안전은 물론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많은 바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비상 출동 시 직원들이 착용, 휴대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구(안전모, 방독면, 방진복, 교통지시봉 등)를 상황실 앞 30인의 사용물량을 상시 비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사용법과 숙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작업장, 교통사고 현장에는 경광등, 로봇신호수가 달린 Sign-Car를 전방에 투입하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는 순찰차를 배치,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및 구난, 복구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각종 조치가 작업현장 등에서 적절히 활용, 가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Feed-Back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사고의 전환으로 특히 출현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화물차량과 연계된 사고 처리는 안전과 신속처리의 관점에서 엄청난 난제였다. 2차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차량의 신속한 안전지대로의 이동은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었다. 또한 사고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했고, 그런 만큼 작업자들은 위험에 노출된 시간이 많았다. 천안지사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특히까지 출현했다. 종전 사고차량이나 화물 견인을 위해 대형 화물차의 에어챔버를 해제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면 특히 출현된 방법은 자체 제작한 특수카트에 화물을 얹어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시킴으로써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사고의 발상은 평상시 직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이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에 노력해온 결과였다.

201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해로..

천안지사는 2009년 무재해 5배 달성을 종착점이 아니라 무재해 10배, 20배를 목표로 한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2010년에는 철저한 안전 점검, 세심한 예방대책 강구, 주기적인 안전교육,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수많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에 전력을 다해 녹색교통혁명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초 제설작업 자재창고 5개소, 정비고, 차고, 주유기 주변 및 위험물 보관시설에 대한 일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종전까지 실시해온 작업방법 등에 대한 현장근로자들과의 토론회의를 개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안지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2010년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